

광주FC, 이정호 감독과 2027년까지 동행한다

구단 창단 이래 최장기 계약 K리그 3위·아챔 진출 이끌어



광주FC 이정호 감독

이정호 감독이 2027년까지 광주FC의 역사를 이어간다. 광주가 13일 "이정호 감독과의 동행을 2027년까지 하기로 했다"며 계약 소식을 전했다. 2011시즌 K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광주 구단 이래 최장기 계약이다.

이정호 감독은 2021년 12월 광주의 7대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지난해 K리그2에 이어 올 시즌 K리그1에서도 실력을 보여준 이정호 감독은 2027년까지 6시즌을 광주와 함께하게 됐다.

사실 광주와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교인 아주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2015년 전남드래곤즈에서 프로 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2016년 광주의 수석코치를 맡아 '남기일 사단'에 합류했다.

이후 성남FC,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코치 생활을 한 그는 2021년 12월 광주와 사령탑 계약을 맺고, 2022시즌 마침내 지휘봉을 들었다.

"만나기 싫은 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던 이정호 감독은 부인 듯 자신의 약속 대로 까다로운 광주를 만들었다. '이정호표' 공격축구로 상대를 몰아붙인 광주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2부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그날 우승이 아니었다. 2022시즌 25승 11무 4패(승점 86)의 전적을 기록한 광주는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을 갈아치우면서 1년 만에 K리그1 복귀에 성공했다.

감독 첫해 4월·9월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그는 시즌이 끝나고 진행된 K리그 시상식에서는 K리그 2 감독상을 받았다. K리그1에서도 이정호 감독은 저력을 발휘했다. 6월 이달의 감독상 주인공이 된 그는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K리그 시상식에서 4인의 감독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23시즌 시작 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주는 최종전에서는 가장 눈길을 끈 팀이 됐다. 광주는 포항스틸러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0-0으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전북현대의 최종전 패배로 3위로 2023시즌을 마무리했다.

광주를 창단 후 K리그1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놓은 이정호 감독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권까지 얻어내면서 광주축구 새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결과는 물론 과정에서도 이정호 감독은 박수를 받았다.

팬들을 위한 축구를 강조한 광주는 '공격 축구'를 펼치며 팬들의 갈채를 받았다. 올 시즌 59골을 넣은 광주는 정규리그 우승팀 울산현대(76득점), FA컵 우승팀인 2위 포항(64득점)에 이어 팀 득점 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포지션 상관없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강조하면서 출중한 수비도 보여줬다. 광주는 올 시즌 38경기에서 단 35골만 허용하면서 전북현대와 최소실점 공동 1위를 장식했다.

이정호 감독이 만든 돌풍은 관중석도 뜨겁게 달궜다. 올 시즌 '표구하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등 광주의 홈 19경기에 8만6090명이 입장해 평균 관중 4531명을 기록했다.

노동일 대표이사는 "광주가 명문 구단으로 리빙 당하기 위해 감독의 장기계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했다"며 "산하 유소년 선수들도 프로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음 목표다. 이로써 구단의 철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뜨거운 시즌을 보낸 광주 선수단은 내년 1월 3일 소집, 태극 치앙마이로 동계 전지 훈련을 떠난다. 3위보다 더 높은 곳을 보는 선수단은 '아시아 무대'까지 동시에 겨냥하며 새 시즌을 준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Giants hope Korean superstar Lee is wind beneath their wings

The Giants landed 2022 KBO MVP Jung Hoo Lee, known as "Grandson of the Wind," with a six-year, \$113 million contract, a source told MLB.com.

이정후(25)가 6년 1억1300만달러(약 1천484억원)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입단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MLB가 현지 소식을 통해 13일 전했다. <MLB 캡처>

이정후, 6년 1484억원 SF입단

MLB 한국인 포스팅 최고액 류현진·김하성보다 많아 '바람의 손자' 별명도 화제

이정후(25)가 6년 1억1300만달러(약 1484억원)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입단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뉴욕 포스트 존 헤이먼, 디에슬레틱의 켈 로젠탈 기자 등 미국 현지 대표적 소식통은 13일(한국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에 입단 합의했다. 계약서에 4년 뒤 옵션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 조항이 포함됐다"고 썼다.

아직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이정후 측은 입단 합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만약 헤이먼, 로젠탈 기자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정후는 한국 선수의 빅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역사를 새로 쓴다.

앞서 류현진이 2013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6년간 3600만달러(연평균 600만달러)에 계약하며 한국프로야구를 거쳐 미국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아울러 현재까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 최대 규모 계약이었다.

타자 중에서는 이정후의 절친한 선배인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2021년 샌디에이고와 한 4년 2800만 달러(연평균 700만 달러) 계약이 최대 규모였다. 연평균 보장은 김하성이 류현진보다 높다.

이정후는 총액 규모와 연평균 금액(1883만달러)에서 모두 류현진과 김하성을 넘어설 것으로

역대 한국인 MLB 포스팅 금액 (12월 13일 현재)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 선수

연도	선수	원소속	낙찰 팀	포스팅 금액(달러)	최대 계약금액(달러)
2013년	류현진	한화	LA 다저스	2,573만 7,737	3,600만 (6년)
2015년	강정호	넥센	피츠버그 파이리츠	500만 2,015	1,650 (4+1년)
2016년	박병호	넥센	미네소타 트윈스	1,285만	1,800 (4+1년)
2020년	김광현	SK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160만	800 (2년)
2021년	김하성	키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552만 5,000	2,800 (4년)
2023년	이정후	키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1,882만 5,000	1억 1,300만 (6년)

연합뉴스

보인다.

한국인 빅리그 자유계약선수(FA) 계약으로 시야를 넓혀도 이정후는 역대 총액 2위가 된다. 추신수는 2014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 1억 3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연평균 금액은 당시 추신수가 1857만 달러로, 1883만달러의 이정후가 더 높다.

류현진은 2020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000만달러에 계약했다. 한국인 빅리그 평균 연봉(2000만 달러) 최고 기록이다.

이정후는 계약 총액은 추신수에 이은 2위, 평균 연봉은 류현진 다음으로 높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후는 2022년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최우수선수에 오르는 등 7시즌 동안 타율 0.340, 65홈런, 515타점, 69도루, 581득점으로 활약했다. 2023시즌 종료 뒤 원소속구단 키움 히어로즈의

동의를 받아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한 이정후는 많은 구단의 관심을 받았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 "이정후의 아버지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의 현역 시절 별명 '바람의 아들'이다. 이정후는 '바람의 손자'라는 멋진 별명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가장 적극적인 구단은 샌프란시스코였다.

피트 퍼렐러 샌프란시스코 단장은 지난 10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이정후의 플레이를 눈에 담기도 했다.

퍼렐러 단장은 "이정후는 한 타석에서 6, 7차례의 스윙을 선보였다. 그의 스윙을 볼 수 있어 좋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정후의 협상 기한은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속전속결로 이정후와의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3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4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뮌헨의 센터백 김민재가 맨유 안토니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재 철벽 수비...뮌헨, 맨유에 1-0 승

UEFA 챔스 조별리그

김민재가 철벽 수비를 펼쳐 보인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진출 희망을 꺾어버리는 승리로 조별리그를 마감했다.

뮌헨은 13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024 UCL 조별리그 A조 최종 6차전에서 후반 25분 터진 김슬리 코망의 결승골을 앞세워 맨유에 1-0으로 승리했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뛰며 라스무스 회이룬, 안토니 등 맨유 공격진을 꽂꽂 묶었다.

장기인 상대 패스를 한 박자 빠르게 끊어내는 플레이와 전진 패스 등으로 승리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후반 2분에는 자신의 전진 패스가 끊겨 역습 위치에 놓이자 안토니에게 향하는 맨유의 패스를 태클로 끊어내는 '결자해지'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김민재는 축구 통계 사이트 풋덱으로부터 7.2의 무난한 평점을 받았다.

직전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1-5로 참패한 뮌헨은 확 달라진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며 우려를 불식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던 뮌헨은 이날 승리로 5승 1무, 무패 선두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UCL 조별리그 40경기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이날 승리하면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었던 맨유는 조 최하위(승점 4)로 쓸쓸하게 탈락했다. /연합뉴스

조규성, FIFA 선정 '아시안컵에서 눈여겨볼 스타 5명'



조규성

클린스만호의 황태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이 국제축구연맹(FIFA) 선정 '아시안컵에서 눈여겨볼 스타 5명'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FIFA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치러진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2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눈여겨볼 야 할 5명을 뽑았다"라고 밝혔다.

FIFA가 뽑은 '아시안컵에서 지켜봐야 할 스타 5명'은 조규성, 이토 준야(일본), 해리 슈타(호주), 하리브 압달라(아랍에미리트), 아리프 아이만(말레이시아)이다.

FIFA는 조규성에 대해 "한국 대표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킵터' 손흥민(토트넘)이지만 조규성의 활약 여부에 태극전사들의

아시안컵 운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의조(노리치시티)가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오현규(셀틱)와 더불어 조규성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조규성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를 상대로 2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친 바 있다"고 덧붙였다.

FIFA의 주목을 받은 조규성은 최근 골 결정력에 물이 오른 상태다.

조규성은 지난 5일 덴마크 수페르리가 17라운드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고, 이를 바탕으로 17라운드 베스트 11에도 뽑혔다.

지난달 15일 열린 싱가포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클린스만호의 5-0 대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연합뉴스